

#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4. 5. 15 | 통권 제49호(2014-01) |

## 최근 고령층 고용동향 특징과 시사점

### [ 요약 ]

-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동력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됨. 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최근 산업별 고용 및 임금구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봄.
- 산업별 장년층의 고용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산업부문에 고용비중의 증가 양상이 같지 않고, 특정 산업들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별·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와 실질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변화와 임금변화 간에 명확한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는 연령대별·산업별 임금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통해서 이해하기 힘들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임.
- 전체 연령대에서의 자영업 종사자 수는 2000년 중후반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 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55~64세 자영업자의 수는 2004년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업소득은 전체 평균소득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장년층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장년층 취업자들의 가구당 자산 또는 소득대비 부채 규모는 지난 6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년층의 노동시장에서의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장년층 취업 현황과 추이

- 2000년 이후 노동시장의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가 장년층으로 이동하면서 고용의 중심이 40대 이후 연령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른 장년 취업자의 증가임.
  - 2000년 이후 12년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5,396천 명 증가하였으나, 5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4,333천 명 증가하여 노동시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장년층 중심의 고용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현상일 수 있음.
  - 2000~12년 사이에 55~64세 취업자는 1,337천 명 증가하였고, 동일기간에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784천 명 증가하여 고령 취업자는 총 2,121천 명 증가하였음.
  - 이는 최근 12년간 3,525천 명의 취업자 증

가 중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가 전체 고용증가에서 60.2%를 차지함.

- 2000년 이후 취업자 증가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연령대별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전체 고용률은 59%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별 고용률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성별 간 고용률 격차는 상당히 커서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 평균적으로 23%p 차이를 보임.
  - 55~64세 연령층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3년 이후 고용률은 5.3%p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7년 이후에는 60% 수준을 웃돌.

<표 1> 장년층의 고용률 변화 추이

(단위 : %)

	15세 이상			55~64세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00	58.5	70.7	47.0	57.8	68.5	48.0
2001	59.0	71.0	47.7	58.3	69.6	47.8
2002	60.0	72.2	48.4	59.5	72.1	47.6
2003	59.3	71.9	47.4	57.8	70.8	45.4
2004	59.8	72.0	48.3	58.4	71.6	45.9
2005	59.7	71.6	48.4	58.7	72.2	45.7
2006	59.7	71.3	48.8	59.3	72.6	46.4
2007	59.8	71.3	48.9	60.6	74.7	46.9
2008	59.5	70.9	48.7	60.6	74.3	47.4
2009	58.6	70.1	47.7	60.4	74.5	46.7
2010	58.7	70.1	47.8	60.9	75.1	47.1
2011	59.1	70.5	48.1	62.1	76.5	48.1
2012	59.4	70.8	48.4	63.1	77.2	4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고용률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완만한 고용률의 증가 추세를 보여 2000년 이후 1.4%p 증가하였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8.7%p 증가하였음.

## 산업별 장년층 취업비중의 변화

- 각 산업에서 연령대별 취업자의 비중을 고려하기 위해 각 산업의 모든 연령대별 고용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구성하여 2004~12년간 고용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 대부분 산업에서 장년층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55~64세 장년층의 경우에는 제조업(3.1%p), 건설

업(6.1%p), 운수업(12.1%p), 숙박 및 음식점업(7.2%p),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6%p), 협회 및 개인서비스업(8.1%p)에서 고용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

- 농림어업에서 55~64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0.3%p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8.0%p 증가하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반면, 15~29세 청년층의 고용비중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특히 제조업(-7%p),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9.4%p),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4%p), 교육서비스업(-11.3%p),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0%p)에서 큰 폭으로 감소함.

<표 2> 산업별 연령대 비중의 변화 : 2004/2012

(단위 : %)

	2004					2012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농림어업	2.0	33.2	28.0	36.8	100	2.2	25.2	27.7	44.8	100
제조업	22.1	69.5	6.9	1.6	100	15.1	72.5	10.0	2.3	100
전기가스수도업	15.5	78.2	3.8	2.4	100	7.4	82.9	7.5	2.1	100
하수폐기물환경	14.2	65.5	16.7	3.6	100	9.3	71.4	13.4	5.9	100
건설업	12.4	74.6	11.5	1.5	100	7.6	72.1	17.6	2.7	100
도소매업	23.0	63.1	9.1	4.8	100	16.9	63.7	11.9	7.4	100
운수업	9.1	75.8	12.8	2.4	100	7.0	61.8	24.9	6.3	100
숙박음식점업	18.7	69.8	9.4	2.1	100	21.3	58.7	16.6	3.4	100
출판방송정보	36.0	61.3	1.9	0.8	100	26.6	70.2	2.5	0.7	100
금융보험업	25.9	69.2	4.0	0.9	100	17.8	75.4	5.9	0.9	100
부동산임대업	10.3	59.0	22.1	8.6	100	6.2	57.1	23.6	13.1	100
전문서비스업	34.2	61.0	3.2	1.6	100	23.8	68.5	6.0	1.7	100
사업지원서비스업	18.1	47.0	26.0	8.8	100	14.6	47.7	24.3	13.4	100
공공행정	11.9	77.3	8.2	2.6	100	7.4	69.8	14.2	8.6	100
교육서비스업	34.8	59.4	5.4	0.4	100	23.5	68.2	7.3	1.0	100
보건사회복지	46.2	49.2	3.7	1.0	100	27.2	59.3	9.3	4.3	100
예술스포츠여가	34.1	57.7	6.0	2.2	100	30.7	58.8	7.9	2.5	100
개인서비스업	18.0	66.0	12.1	3.9	100	11.9	62.0	20.2	5.8	100
가구내 고용활동	1.3	50.2	34.7	13.8	100	0.2	30.8	48.2	20.8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4/2012.

- 산업별 장년층의 고용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산업부문에 서 고용비중의 증가 양상이 같지 않고, 특정 산업들을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고용변화와 임금변화

- <표 3>은 2004~12년간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와 장년층의 월 실질임금수준을 보여주는 데, 실질임금의 변화와 고용량의 변화에서는 명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장년층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8년간 제조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54세 이하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문·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감소되었음.
- 장년층의 고용이 증가한 제조업, 운수업 등에서는 실질의 임금증가가 크게 나타나지만

<표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와 임금 : 2004/2012

(단위 : 천 명, 만 원)

	2004/2012		2004		2012	
	54세 이하 취업자 변화	55~64세 취업자 변화	54세 이하 임금의 중간값	55~64세 임금의 중간값	54세 이하 임금의 중간값	55~64세 임금의 중간값
농림어업	-295.4	-87.5	119.3	59.7	141.1	75.3
제조업	-72.2	122.5	173.0	119.3	188.1	169.3
전기가수수도업	3.6	2.9	250.6	298.3	310.4	357.5
하수폐기물환경	23.5	1.6	202.9	161.1	178.7	159.9
건설업	-44.8	103.0	179.0	119.3	188.1	141.1
도소매업	-113.3	92.2	131.3	119.3	150.5	122.3
운수업	244.0	198.6	179.0	143.2	188.1	169.3
숙박음식점업	-150.8	123.7	107.4	95.5	103.5	103.5
출판방송정보	94.4	6.0	214.8	202.9	235.2	297.3
금융보험업	104.1	20.4	238.7	179.0	235.2	188.1
부동산임대업	32.9	14.8	163.5	95.5	169.3	112.9
전문서비스업	421.7	42.7	193.3	119.3	235.2	369.7
사업지원서비스업	430.5	92.3	143.2	95.5	141.1	103.5
공공행정	183.6	71.9	262.5	119.3	254.0	263.4
교육서비스업	199.0	45.0	167.1	417.7	169.3	385.7
보건사회복지	809.2	108.7	155.1	119.3	141.1	103.5
예술스포츠여가	63.1	11.5	107.4	143.2	136.4	112.9
개인서비스업	164.0	123.9	131.3	107.4	141.1	112.9
가구내 고용활동	41.8	36.9	65.6	59.7	75.3	7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4/2012.

도소매업에서는 임금변화가 매우 작음. 54세 이하에서는 고용량이 크게 감소한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임금이 줄어들었지만 도소매업에서는 증가하였음.

- 연령대별 · 산업별 임금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통해서 이해하기 힘들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비임금근로자의 규모변화와 소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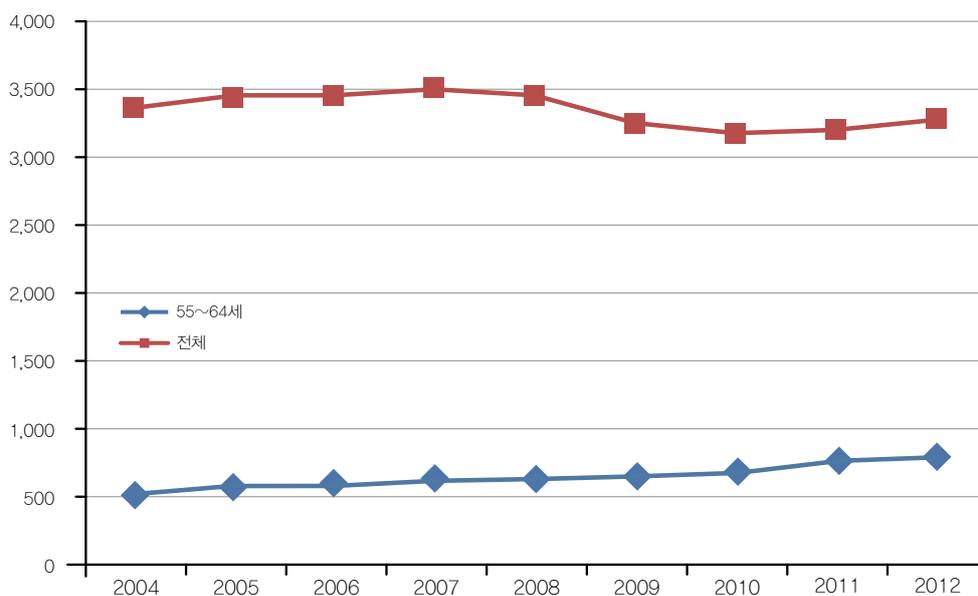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은 정년퇴직 이후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그림 1]은 2004년 이후 취업자 중에서 가구주 기준으로 자영업 종사자 그리고 55~64세 연령대의 농림어업을 제외한 자영업 종사자 추이를 살펴본 것임. 전체 연령대에서의

자영업 종사자 수는 2000년 중후반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55~64세 자영업자의 수는 2004년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장년층의 자영업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그림 2]는 중고령자의 자영업 진입의 향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4년 이후 자영업자의 월 사업소득의 추세를 나타냄. 이 그림을 살펴보면, 중고령자의 자영업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전체 자영업자의 월 사업소득은 2000년 중후반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2008년 이후에는 급락하였음. 55~64세 장년층 자영업의 경우, 월 사업소득은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10년 이후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임.

[그림 1] 자영업 종사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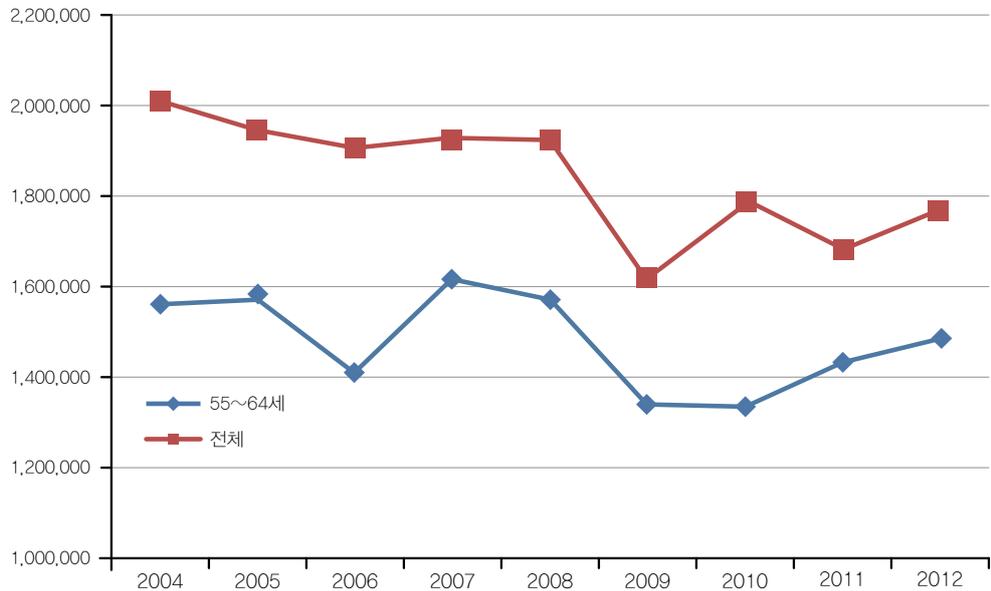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자영업자의 실질 월 사업소득 추이

(단위 : 원)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55~64세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와 하락하는 사업소득은 장년층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열악함을 암시하며, 장년층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총자산-총부채), 자산총액, 정상소득은 감소하였으나 부채총액은 6년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은퇴 시점을 전후하여 자산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연령대별 순자산 변화 추이

- 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은퇴와 같은 노동공급을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고, 그 중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사용될 노후자금의 규모인데, 60세 전후로 자산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관찰됨.
  - <표 5>에서 2006~12년간 연령대별 가계재정의 변동을 살펴보면, 2006년 51~56세 그룹은 6년 후에 부채비중은 증가하였지만 다른 가계재무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 반면 2006년 57~62세 그룹은 2012년에 순자산

- 가계의 장단기 부채상환 능력은 가구별 부채·소득과 부채·자산 비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006년과 2012년간의 가구별 부채·소득과 부채·자산의 비율의 분포를 살펴봄.
  - [그림 3]은 1944~49년 출생그룹, 즉 <표 5>에서 2006년 57~62세 그룹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로그 부채·소득과 로그 부채·자산 비율에 대한 확률밀도의 추정결과를 나타냄. [그림 4]는 [그림 3]과 유사하게 1950~55년 출생그룹의 로그 부채·소득과 로그 부채·자산 비율에 대한 확률밀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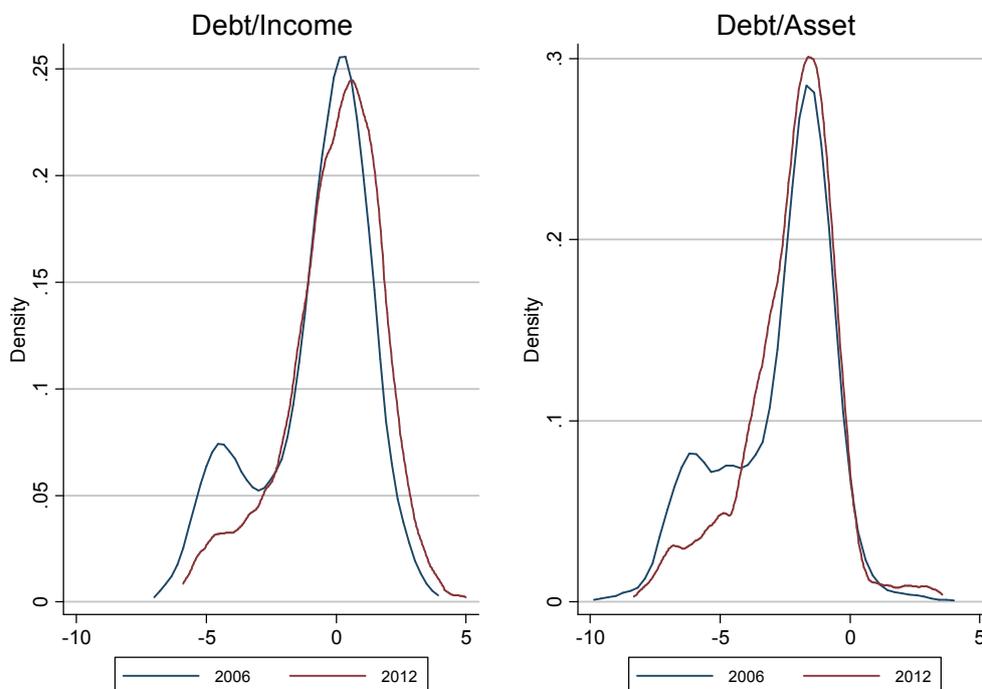
〈표 5〉 연령대별 가계재무 상태와 고용률 변화

(단위 : 만 원, %)

		39~44세	45~50세	51~56세	57~62세	63~68세
2006	순자산	24,997	28,382	35,204	41,791	38,719
	자산총액	30,190	32,972	40,248	46,799	42,488
	부채총액	5,193	4,590	5,044	5,007	3,768
	경상소득	4,658	4,604	4,560	4,066	3,766
	고용률	78.4	76.8	70.7	59.1	46.0
2012	순자산	23,800	29,480	32,961	35,096	26,373
	자산총액	29,155	36,577	40,383	41,903	31,403
	부채총액	5,355	7,096	7,422	6,807	5,030
	경상소득	5,166	5,540	5,605	4,684	3,082
	고용률	77.2	78.8	73.8	62.5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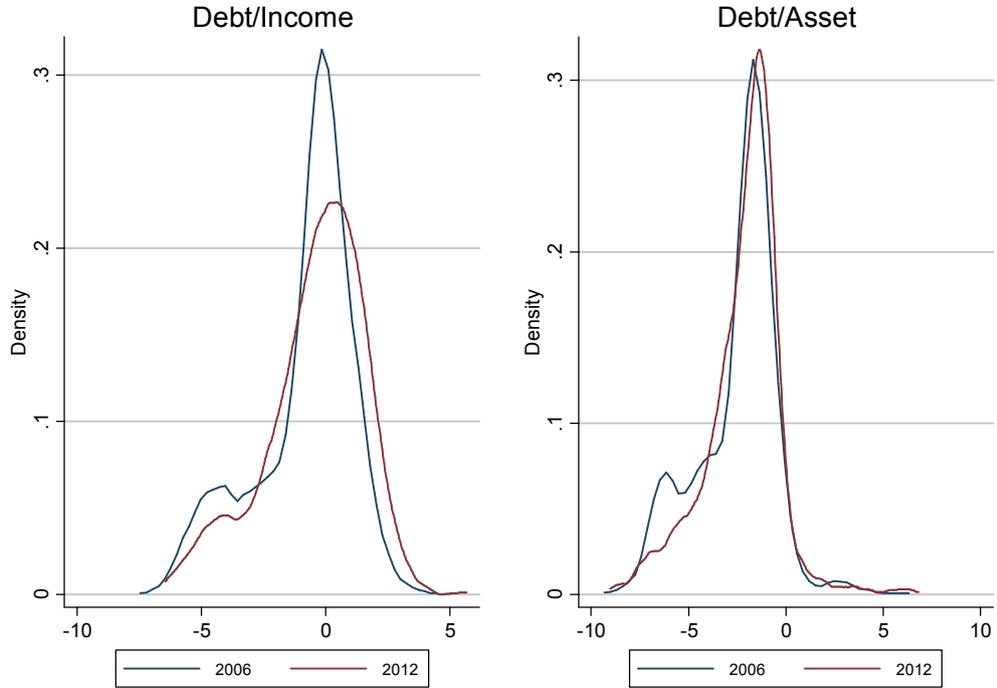
주 :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10년 기준 가격으로 변환됨.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1944~49년 출생그룹의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 비율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4] 1950~55년 출생그룹의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 비율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 [그림 3]과 [그림 4]에서 부채·소득 비율은 왼쪽 꼬리 부분이 줄어들면서 분포가 약간 우측으로 이동함을 보이고 있고, 또한 부채·자산 비율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부채·소득보다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단기 부채부담이 커진 가구의 비중이 증가되었음.
- 지난 6년간 가계부채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은퇴 전후의 세대에서는 오히려 재정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보이며, 부채 부담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급격한 노동공급에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경곤(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02-3775-5649 / leegon@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http://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http://www.kli.re.kr)